능원 정사 "감동교화로 시대 선도를"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법회
신행문화 개발 · 전개 '역점'
인재양성으로 종단 미래 모색
32대 집행부 · 교구청장 소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32대 집행부와 전국 8개 교구청장을 소개하고 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공식 취임했다. 능원 정사는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감동교화의 신행문화를 개발·전개해, 진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진각종은 12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총인 덕일 대종사와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현정원장 대원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 등 종단 스님들이 참석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함께해 능원 정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능원 정사는 취임사에서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를 기본정신으로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펴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능원 정사는 "감동교화는 스스로 감동하고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켜 교화하고 포교하자는 뜻"이라며 "전통을 잇는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그 가르침이 현시대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능원 정사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명제 아래 인재양성에 종무행정을 집중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단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능원 정사는 32대 집행부와 전국 8개 교구청장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봉행위원장 법운 정사(총무부장)는 "오늘 취임불사를 갖고 32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해 종단의 새로운 종무행정을 이끌어갈 능원 정사님은 스승과 신교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교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신행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새 집행부도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는 정신을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통리원장님의 뜻을 헤아려 신교도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대방편으로 수행과 교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전국 불교도들 "윤석열 하야·퇴진"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 대불련
불교인권위, 중승대 학생회
전북 5대 종단 종교인 등
한 목소리로 퇴진 요구해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에 전국의 불교도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조계종 승가교육기구인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도 같은 날 윤 대통령 퇴진에 힘을 모았다. 중앙승가대 제44대 총학생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불교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 정당 해체를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와 불교평화연대는 12월 8일 '내란 쿠데타 주범 윤석열, 국민의힘, 내각은 즉각 사퇴하라'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도 12월 6일 비상계엄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북지역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개신교 5대 종단 종교인들은 12월 10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임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김가령·김민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선학원 이사장, 정상화 의지 보여야"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 12월 10일 공청회

수경 스님, 종법 개정 이뤄져야
두 기관 갈등으로 피해 이어져

"선학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나 중앙종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를 위해 법 개정도 있었으나, 선의와 다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단과 선학원이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총무원장과 이사장이 함께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 정상화는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사진〉이 조계종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1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재)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 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0여 년간 조계종단과 선학원은 수십 차례 갈등과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한 스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줄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종단과 선학원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선학원 소속 사찰의 창건주 및 분원장, 도제는 권리제한으로 인해 조계종 승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교육과 수계 권리까지도 제한받고 있으며 선학원에서는 종단 제적원 제출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수경 스님은 발제 '선학원 소속 사찰 스님의 권리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에서 "도제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종단과 선학원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서로 합의점을 만들고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이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제한 해제를 위한 방안모색으로 네가지를 제안했다. △2011년 종회에서 발의됐지만 부결된 '도제 권리 해제를 위한 종법개정안'을 한 번 더 검토할 것 △2017년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구제를 위해 신설된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2항 4호를 근거로 권리제한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5조(상임위원장) 1항에 의거해 추진위원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면 추진위원장 추대로 추진위원회가 가동될 것 △중앙종회 내 상설 기구로서 (가칭)선학원 관계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등이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를 세계로!"…제1회 국제전법의 날

해외특별교구 · 국제전법단
해외포교 공로자 표창 시상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해외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가 주최하고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전법의 날' 행사가 12월 7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해외포교에 헌신한 '국제전법인'들을 격려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원력을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제1회 국제전법의 날 참석대중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포교를 위해 다들 열심히 정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같이 희망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저도 미력하지만 함께 하며 많이 교류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안국선원 이사장 수불 스님은 미국, 뉴질랜드 등에 선원을 설립하고 해외 한국 사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특별교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해외포교에 앞장섰던 스님과 재가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상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오 스님이 선정됐다. 진오 스님은 국내외에서 이주민 포교를 위해 정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교원장상은 국제전법단 부단장 자우 스님과 박정미 불자가, 해외특별교구장상은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 국제포교사회장상은 정경래 국제포교사가 수상했다. 김민재 기자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 첫 졸업생 80명 배출

태원 스님 "신심과 정진 결실"
"불법 포교에 앞장설 것" 다짐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이 첫 졸업생 80명을 배출했다. 조계종으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배출된 졸업생이라 의미가 크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2월 7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제1회 도선사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1년간의 과정을 성실한 이수한 한 졸업생 80명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선사 불교대학은 올해 3월 15일 개강했다. 입학생 91명은 부처님 생애(정완 스님), 불교개론(법수 스님), 불교사의 이해(정완 스님), 경전개설(이재수 교수), 불교사의 이해(한성자 교수, 정완 스님), 경전개설(이재수 교수), 불교심리학(수안 스님) 등을 과목으로 1년 동안 수업을 이어왔다.

주지 태원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신심과 끊임없는 정진의 결실"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도선사 불교대학 1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포교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다가올 2, 3기 후배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선배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대학장 남일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품계수여와 함께 '부동품계' 뱃지를 달아주며 졸업을 축하했다.

이은영 씨는 졸업생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도선사의 발전과 불법 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세영 스님 선출

12월 5일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
"나눔의집 문제해결 최선 다할 것"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경기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나눔의집은 12월 5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 역사관 1층 교육관에서 '2024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세영 스님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이는 성화 스님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표 제출에 따른 조치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로 올해 들어 입소자 부재의 문제를 겪었다. 거주 할머니들의 사망 혹은 노령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등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나눔의집이 가진 양로시설 기능이 희박해지자 법인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전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올해 10월 이사회에서 나눔의집 양로시설 폐지 후 역사관 형태로 변경해 국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불교계의 원력으로 세워져 30년간 운영돼 온 나눔의집이니 되도록 불교계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눔의집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 대표이사를 맡으며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보니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면서 "나눔의집은 단순히 불교계 시설이라는 점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이 남은 현장이기에 추모와 역사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재 나눔의집이 가진 사안 전반의 해결을 위해 법조, 행정, 복지 등 다방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남북 불교유산, 유네스코 등재 방안 모색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민추본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남북 불교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연구학회(회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2월 6일 동국대 사회과학과 M308호에서 '21세기 지구촌의 과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회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추본은 전체 4개 회의 중 제1회의에서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조선시대 언해불서의 현황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공동 추진의 가능성 모색(천명희 국립안동대 박사) △지속가능한 남북불교협력 방안 모색 : 금강산 평화순례길과 유네스코 활용을 중심으로(허정필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로 이어졌다. 또한 박순 경상북도불교문화원 상임이사와 이정호 세계경제외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가령 기자